

지역 문예지의 역할과 탈지방화

- 일제 강점기 진주 지역 문예지 『신시단(新詩壇)』 을 중심으로-

김지연(경상국립대학교)

1. 연구자의 자리: 지역 문예지에서 길을 찾다

● 지역 문학 연구가 아직도 불모지인 이유

- 서울 중심의 연구로 지역에 대한 관심 부족

- 지역 관련 자료 부족으로 인한 연구의 어려움

● 지역 문예지 연구의 필요성

- 기존의 소수 중심이었던 특정 성이나 지역 위계 고착 문제에서 벗어나 소

외되었던 지역 문학의 장점 파악하여 새로운 문학사 서술 가능성 제고

- 일제 강점기 지역 문학과 문화 의식 파악

- 작가의 지역 활동을 살펴 새로운 면모 파악 가능함

- 동경, 서울 중심의 카프 연구에서 벗어난 지정학적 위계의 전복 가능성

『신시단』은 어떤 문예지인가

창간 과정	필진 및 참여 진	특징
1928년 3월 18일 창립 총회 개최 당시 5월 초순 창간호 발행 계획 -> 5월 7일 일제의 압수와 발행금지 조치 -> 1928년 8월 임시호 발행	진주: 김찬성, 김병호, 엄홍섭, 진우촌 거제: 이구월 통영: 탁상수 개성: 민병희 후견인: 신명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지에 서기 〈1928.8〉로 밝혀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표출 검열로 압수 당한 후 임시호로 발행: 일제의 저항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 제1권 제2호로 표기하여 창간호에 이어 출간되었음을 강조

2. 진주 지역 문예지 『신시단』의 지역 문화 의식 고취와 대중화 전략

2-1. 저항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민의 문화의식 고취

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 표출

- 엄홍섭의 <詩集>, 소용수의 <西將臺다리에서> 등에서 '축석루', '의암', '서장대'를 통해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드러냄

- 창간호 발행 무산에 따른 '임시호' '전문삭제' 표기로 일제의 탄압삭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냄

지역민의 문화 의식 고취 노력

- 1920년대 다른 시 전문지와 다른 갈래별 편집: <시가>, <시론>, <신시>, <동요>, <수필>, <감상> 등의 항목으로 당시 다른 시 전문지가 시와 시론 중심으로 편집했던 것과 구별됨

- <예술은 무엇인가>, <시란 무엇인가>(검열로 삭제 되어 수록되지 못함) 등의 시론 수록으로 지역민의 문화 교육 의지 보임

문화 운동과 문화운동의 구심체 역할

- 지방 문예 운동의 전위로서 선구적인 역할- 진주 지역 문사들과 사회운동집단의 교감

- 지역 교사 출신 작가(엄홍섭, 김병호, 김찬성 등)의 지역 소년 문예 단체 후원과 문예 운동 관련 활동 고찰 필요



2-2. 대중화 전략

지역민의 후원과 광고로 재원 및 문화 여건 마련

- '남향(南鄉) 키네마', 김기합, 김종탁, 동아자동차부, 이성락, 월성양복점, 손용입, 현석건, 이농구, 경성여관 등 지역민의 광고를 실어 재원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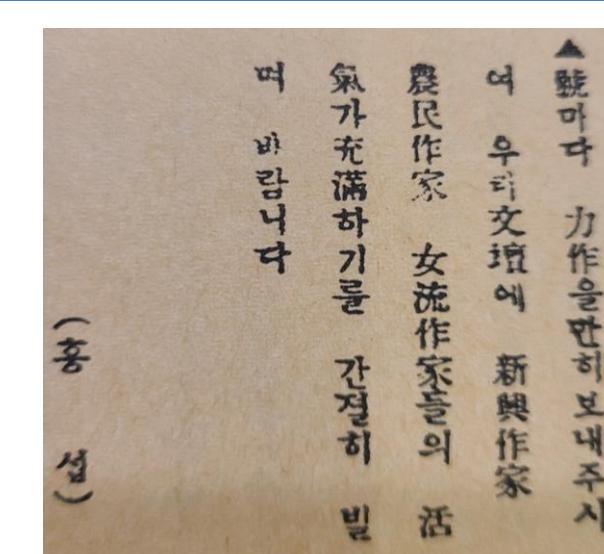
- '남향 키네마'를 설립하고 진주 지역 최초의 영화인 <암로>(1928)를 상영한 카프 단원인 강호와 『신시단』 수록 작가와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

지역 작가 양성 및 발굴 의지

- 월간지를 표방하며 신흥 작가 모집 등 지역 작가 발굴 의지를 보임.

- 특히 적극적으로 농민 및 여성작가의 발굴 의지를 드러냄은 당시 문단 상황을 볼 때 매우 주목할 부분임

➤ "호마다 역작을만히 보내주시여
우리문단이 신흥작가 농민작가
여류작가들의 활기가 충만하기를
간절히 빌며 바랍니다.(홍섭)"
-엄홍섭, 『신시단』 47면



3. 진주 지역 문예지 『신시단』의 탈지방화 시도

3-1. 수평적 지역 연대 의식

- 진주 지역 문인과 더불어 전국적인 필진(개성, 인천, 통영, 남해 등) 작품 수록, 중앙 문인과의 활발한 교류

- 거제, 통영, 개성 등의 타지역 작가의 작품을 수록할 뿐만 아니라 후원인 겸 발행인은 신명균으로 하여 지역 연대 모색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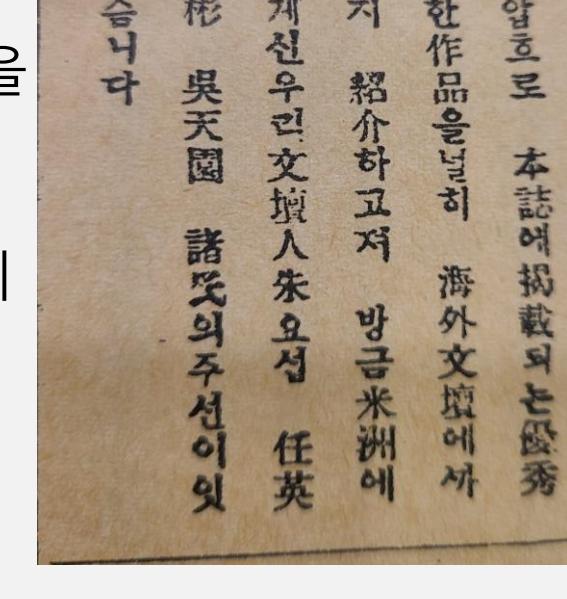
- 타지역(인천의 『습작시대(習作時代)』, 공주의 『백웅(白態)』, 대구의 『죽순』) 문예지와의 활발한 교류 시도함

(엄홍섭은 공주 지역 문예지인 『백웅(白態)』 (1928)에 <바다>, <오늘도> 등의 시를 수록하기도 함)

3-2. 해외 교류 모색

- 『신시단』의 수록 작품을 미국 문단에까지 알리려는 노력 등 해외와의 적극적으로 교류를 시도함

➤ "암호로 본지에서 게재되는 우수한 작품을
넓히 해외문단에까지 소개하고자 방금미주에
개신우리문단인 주요섭 임영빈 오천국 제씨의
주선이잇습니다(홍섭)"
-엄홍섭, 『신시단』 47면



4. 그 역사와 현재

진주 지역 문예지 『신시단』의 의의

1920년대의 서울 중심의 문예 운동을 추종하면서 작품 투고나 하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직접 운동의 전면에 나서 잡지라는 발표의 현장을 구축하고자 했던 점

당시 중심에서 면 지방 문예지였으나 지방에 안주하지 않으며 중앙 문단 못지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탈지방화의 방향성을 보여줌

향후 가능성

지역 문예지 연구는 한 시대를 공유하는 구체적인 문학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이 시점에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은 열

어줄 것임